



『독서치료 사례 연구』를 읽고



한 윤 옥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교수
yohan@kgu.ac.kr

최 근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도서관 현장과 학계의 몇 사람이 참여하여 회의한 일이 있다. 회의 안건은 ‘아동사서의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아동사서 자격제도의 필요성부터 시작하여 자격 요건, 제도의 형태와 실현 가능성, 현장에서의 적용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때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문제의식은 사교육시장에 점령된 것이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독서 영역까지 그렇다는 것이었다. 지금 비슷한 현상이 독서치료 분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맞춤서비스로서 사서들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독서치료가 사교육시장의 침투를 받으면서 지식형으로 자리 잡아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잠재된 위기의식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시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책 한권이 나왔다. 바로 『독서치료 사례연구』이다.

저자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지도교수인 김정근과 그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도서관형 독서치료의 지향점을 <체험을 기반으로 한 발달적 독서치료>로 보고 있으며, 그것의 실천원리를 김정근 교수가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왜 지금 우리가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져야하는지를 간략히 짚고, 도서관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독서치료에서 왜 ‘체험’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룩기라고 볼 수 있는 도서관형 독서치료에서 우리가 부딪치게 되는 위험요소와 경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그러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그들의 실험연구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개척 영역에 홀로 선 저자의 고뇌가 컸던 만큼 설득력이 있는 글을 읽다보면 수입학의 함정과 경계혼란의 함정, 목적상실의 함정을 뛰어넘어 사서가 담당해야 할 몫이 눈앞에 그려



독서치료 사례 연구

김정근, 김은엽, 김수경, 김순화 지음.
 파주 : 한울, 2007.

진다. 이론적 근거가 취약해서 흔들리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머리가 끄덕여지면서 자신감이 솟아오른다. 이어서 2부에서는 김은엽이 20대 여성 K를 대상으로 내세운 자전적 치유사례를 소개한다.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만큼 어떻게 우리 개개인이 '상처입은 치유자'로서의 '체험'을 할 수 있는가를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한국형 마음의 병인 '화병'을 달고 사는 우리나라 주부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독서치료 모임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김수경이 진행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심화과정까지 있어서 더욱 깊어지는 독서치료 사례를 볼 수 있다. 또 김순화는 개인적으로 겪은 상처입은 치유자로서의 경험을 사서라는 자신의 직업의식으로 옮겨온다. 어떻게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 모임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아무 준비 없던 사서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한국형 독서치료가 모든 공공도서관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된 책임을 알 수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몰라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망설이고 있던 사서들이 이 책의 사례에 제시된 대로 따라 하다보면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도 무리 없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도서관형 독서치료가 상업주의에 편승한 그것과 어떻게 달라야 하며, 다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34)